

데이비드 하비의 환경정의론과 『희망의 공간』

최병두

대구대 지리교육과 교수

1. 서론

우리의 현재적 삶을 조건지우는 시·공간은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으며, 이 조건을 극복하고 나아갈 보다 규범적(유토피아적)인 공간, 즉 정의와 희망의 공간은 어떠한가?

근대 서구 의식체계에서 공간은 철학적 및 사회이론적 논의에서 다른 주제들, 특히 이에 상응하는 시간의 개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이 공간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 근대 학문체계에서 다양한 공간관련 학문들(예로 지역개발학, 도시계획학, 도시 및 환경 공학 등)은 새롭게 생성되고 그 연구범위를 확대시켜 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철학적 및 사회이론적 논의에서 공간에 관한 논의 자체가 왜 부족했는가라는 점과 더불어, 공간이 다른 주제들에 비해 열등한 의미를 가지게 된 사회적 조건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 점은 현실세계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다른 어떠한 수단들보다 공간을 매개로 자신을 존립·발전시켜 왔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이해되어야 한다(Lefebvre,

1973; Harvey, 1990). 따라서 문제는 학문의 외적 조건으로서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가 공간에 관한 담론을 어떻게 왜곡시켜 왔는가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한 의미로서 ‘공간의 정치경제학’을 정립하고, 그 궁극적 목적으로서 정의와 희망의 공간으로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유의하다고 하겠다.

물론 공간의 정치경제학은 항상 미완의 상태에서 개방된 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으며, 정의와 희망의 유토피아적 공간에 관한 담론의 완결과 현실세계에서 이의 실현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무한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어느 정도의 맹아적 기반을 구축했던 공간의 정치경제학(Harvey, 1982; 한국공간환경학회, 2000)은 공간에 관한 새로운 여러 방법론과 이론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이들은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포드주의 또는 총괄하여 포스트맑스주의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장들과 개념들, 그리고 인식체계들을 포함한다. 이들이 ‘공간’을 명시적으로 취급하는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내용 속에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간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 원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인식체계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이론이 현대사회가 처해 있는 시·공간적 현실을 제대로 이해 또는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현대사회의 공간이 100여 년 전 맑스가 살았던 사회의 공간과는 비교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음은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속에서, 현재 서구사회는 ‘포스트모더니티’라고 불리는 새로운 문화양식의 조건과 그 시·공간적 또는 역사·지리적 배경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양 시대의 사회공간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추상적인 배경은 여전히 ‘자본주의’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적 변화를 강조하는 포스트주의적 공간이론들을 ‘공간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포스트모더니티의 시·공간적 조건을 포착하면서도 ‘자본주의적 공간’의 역사적 현실을 분석하고 또한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거대이론으로서 공간의 정치경제학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전히 유의하다고 하겠다.

하비가 주창하는 역사지리적 유물론은 바로 이러한 ‘포스트모던 사고와 문화 생산의 소용돌이를 포용할 수 있는 메타이론’을 추구한다. 특히 그에 의하면, 이른바 세계화와 이에 동반되는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워지는 현재 상황은 지난 20~30년 전에 비해 더욱 적실하게, 따라서 더욱 절실히 『자본론』의 독해를 요구한다고 주장된다(Harvey, 2000: 서론 참조).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1989)을 출간한 이후 그의 연구들, 특히 『정의, 자연, 차이의 지리학(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1996)에서 그는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에 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최근의 담론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들, 예로 (공간 및 시간의 개념과 더불어) 차이, 정의, 환경, 세계화, 신체 등을 주요 주제들로 다루고 있다. 나아가, 그의 가장 최근 저서인 『희망의 공간(The Space of Hope)』(2000)에서는, 규범적 공간, 즉 정의와 희망이 충족될 수 있는 유토피아적 공간은 어떻게 추구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현재 연구 동향은 과학적으로 엄정한 정치경제학적 현실 분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하에서 형성된 공간의 담론들에 개입하고, 이들을 역사지리적 유물론에 포섭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지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글에서 데이비드 하비의 최근 저서들을 중심으로, ① 포스트모던 공간 개념을 포섭하기 위한, 즉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결합시키기 위한 그의 시도, ② 자연과 환경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에 대한 검토와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이에 관한 재인식, ③ 거시적 공간으로서 세계화와 미시적 공간으로서 신체에 관한 비판적 이해, ④ 끝으로 유토피아적 공간의 개념화와 그 의의 등에 관하여 그의 입장을 소개하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¹⁾

2. 공간과 장소의 개념적 재결합

근대적 의식의 발달과정에서, 공간은 흔히 텅빈 공간 또는 기하학적 공간으로 이해되게 되었지만, 공간은 결코 이렇게 단순하게 개념화될 수 없다. 공간은 그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로부터 분리된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항상 구체적 사건이나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간은 사물들간의 복잡한 연계 속에서 흔히 추상화(또는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여기서 추상화란 실재론적 관점에서 추상과 구체 간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추상화된 공간이란 구체적인 사물과 그 장소들로부터 추론된 것으로, 사물들에 앞서 존재하는 선험적 공간과는 구분된다. 문제는 이 공간이 만들어내는 장소의 특수성과 차이에 직면하여 어떻게 공간에 관한 일반이론을 유지하고 정교화시킬 것인가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즉 장소)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결합시키면서, 그 속에 내재하는 사물들의 속성이나 관계에 관한 개념들, 즉 사회이론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 의문들에 대한 해답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며, 어떤 이중적 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기존 사회이론에 공간을 결합시키는 일은 그 유형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그 이론의 힘을 훼손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즉 공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유연성과 구체성, 타자성들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과학 메타이론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 심지어 ‘해체’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다(Harvey, 1993; 박영민 역, 1995: 35). 그러나 다른 한편, 포스트모던 사상의 주요 전제들 가운데 하나, 즉 정체성과 ‘장소들’이 사회적 질서 속에서 담론적으로 구축된다는 사실은 장소나 정체성의 형성이 아주 유연스런 경우들을

1) David Harvey의 저작들에 관한 기존의 서평 또는 이론 소개 및 비평으로, 조원희(1991), 최병두(1993), 임서환(1995), 김덕현(1995), 최병두(1996) 등 참조.

제외한다면 물리적 입지나 영토적 표현과 같은 공간의 보다 추상적인 성격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도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한편으로 미시적 장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상상되는가,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보다 거시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물질적으로 구축되고 변화하는가라는 두 문제 사이에 어떤 단절이 존재할 경우, 그러한 담론은 단숨에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하비는 공간의 개념화에 있어 이러한 두 가지 이중적 문제, 장소의 특수성과 공간의 일반성을 결합시키는 문제, 그리고 정체성과 장소의 재현 및 상상에 관해 담론적으로 구성된 공간과 거시적인 구조적 배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구축된 공간을 개념적으로 결합시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²⁾ 이 문제는 『정의, 자연, 차이의 지리학』에서 그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그는 공간과 시간의 ‘사회적 구축’에 관한 경험적 재고찰뿐만 아니라 공간에 관한 칸트의 개념화 이후 라이프니치와 화이트헤드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사상들에 대한 비평에 기초하여 공간과 시간의 변증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비는 우선 공간과 시간의 사회적 구축을 4가지 측면에서 명료히 하고자 한다(Harvey, 1996: 제9장 참조). 즉 첫째, 공간과 시간의 사회적 구축은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물질적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공간과 시간의 여러 형태들로부터 도출된다. 둘째, 공간과 시간의 개념화는 문화적, 은유적 그리고 지적 능력에 좌우된다. 셋째, 공간과 시간의 사회적 구축은 모든 개인과 제도들이 필수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객관적 사실의 힘으로 작동한다. 넷째, 객관적 공간과 시간의 사회적 규정은 사회적 재생산의 과정에 함의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과 시

2)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20여 년 전에 쓰여진 『사회정의와 도시(Social Justice and the City)』(1973)를 최근 그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정의(justice)의 개념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Harvey(1991) 및 Harvey(1993a) 참조.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그의 『정의, 자연, 차이의 지리학』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간의 사회적 구축은 보다 구체적으로 계급투쟁과 젠더 투쟁 등을 통해서, 시공간성에 관한 생태적 규정이나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규정에 의해 경험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비에 의하면,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사회적 구축에 관한 관점은 결국 역사지리적 유물론으로 수렴된다.

이와 같이 공간과 시간의 사회적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공간의 일반성과 장소의 특수성 간을 개념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그의 역사지리적 유물론은 공간과 시간에 관한 변증법적 사고를 재구성하여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포스트모던 현실과 맑스주의적 이념을 종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변증법적 사고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내재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인식틀로 제시된다. 사실, 오늘날 변증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철학적인 것처럼 들리거나 또는 매우 상식화되어 진부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변증법의 본질에 관한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변증법의 주요한 원칙들이 재인식되어야 한다. 하비가 제시한 11개의 명제들 가운데,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Harvey, 1996: 48-57). 첫째, 변증법적 사고는 요소, 사물, 구조 그리고 조직된 체계에 관한 분석에 비해, 과정, 흐름, 유동, 그리고 관계에 관한 이해를 강조한다. 둘째, (자연적, 사회적 실체의) 요소들 또는 사물들은 구조된 체계나 장(場)에서 작동하는 흐름, 과정, 관계들에 의해 구성된다. 셋째, 이러한 사물들과 이들로 구성된 체계들은 이들을 구성하는 다원적 과정으로 인해 내적 모순을 담지한다.

이러한 변증법적 원칙들에 근거하여, 하비는 라이프니체의 독단, 즉 ‘나는 모든 사물의 척도이며, 나 자신의 내적 조건들에 관한 심층적 반성은 우주의 모든 지식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이라는 이상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담론/언어, 권력, 믿음/가치/욕망, 제도/의식, 그리고 물질적 실천으로 구성된 사회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의 변증법을 제시한다. 사실, 이러한 담론의 변증법은 사회이론화 과정 또는 역사지리적 유물론의 구축을 위한 기초로서 제시된다. 즉 하비에 의하면, 역사지리적 유물론에 관한 담론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포괄하여야 한다. 첫

째, ‘공간지도 그리기’의 담론적 활동은 모든 지식의 구성에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둘째, 지도그리기는 권력을 포괄하는 담론적 활동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는 항상 공간적이며, 어떤 특정하게 생산된 공간성의 틀 속에서 존재한다. 넷째, 물질적 실천들은 공간성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도출되는 경험의 공간을 전환시킨다. 다섯째, 제도들은 일정하게 지속되는 공간을 생산한다. 여섯째, 상상적인 것은 상이한 담론, 권력, 사회적 관계, 제도적 구조, 그리고 물질적 실천을 편성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적 세계의 풍부한 근원이 된다(Harvey, 1996: 111-112).

이러한 시공간의 사회적 구축이라는 관점 및 변증법의 원칙 속에 함의된 시공간의 개념은 하비가 보다 직접적으로 공간과 장소 (그리고 환경)의 개념을 서술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된다. 즉 그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의 개념화는 무에서 선형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에 관한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구축된다. 특히 하비는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 공간의 범주화, 즉 절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 관련적 공간으로 유형 구분을 포기하고, 공간과 장소의 변증법, 나아가 공간·장소·환경에 관한 관련적 이론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련적 이론은 개체성, 정체성, 그리고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실제 공간과 시간 상, 또는 사이버공간상에 위치지워진 신체에 관한 논의가 제시된다. 즉 하비는 시공간 관계에 관한 라이프니츠와 화이트헤드의 정형화를 이용하여 공간과 시간에서 신체에 관한 이론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개체들을 단자들(monads; 즉 동일한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창문들)로 이해하는 라이프니츠의 모형은 관점의 다양성을 설명하지만, 또한 관점들간의 병존불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이 지적된다(Harvey, 1996: 제10장 참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비는 시공간적 과정들 간에는 필수적인 연계가 존재한다는 화이트헤드의 사고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신체들간 연계를 지도화하기 위해 이들간에 작동하는 자본을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하비의 주장의 핵심은 신체의 생산-자본주의하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의 길들이기, 성 가르기, 범주화하기-에 있다. 그리고 자본은 욕망의 감옥에 신체를 위치지우는 노동과 소비의 체계를 창출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신체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과정들의 시간과 공간을 즉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만약 르페브르, 푸코, 하라웨이(Haraway)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가 권력의 체계 내에서 생산될 뿐만 아니라 저항의 장소로 특권화된다면, 신체가 도대체 어떻게 자본의 순환 밖에 있는, 그리고 자신을 규율하는 여러 메커니즘 밖에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저항의 장소로서 신체에 초점을 둔 포스트모던 이론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는 ‘처재적(situated)’ 지식과 사이보그(cyborgs)에 관한 하라웨이의 주장들에 대해 논평하면서, 그녀의 ‘사이보그 선언’이 찬양하고자 했던 신체적 경계를 해체시키고자 한다(Haraway, 1995).³⁾ 그는 이러한 신체의 유기적 관점으로의 회귀 욕망은 결국 다국적 자본주의의 ‘새로운 산업혁명’ 또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분해되고 재구성된다고 주장한다. 하라웨이가 비판하고자 한 점은 신체에 관한 바로 이러한 유기적 관점과 향수적 수사이지만, 하비는 바로 이러한 비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론 공간과 시간에 관한 역사지리적 유물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비는 단순히 맑스의 정치경제학을 반복하거나 추상적 철학 사조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를 보다 최근의 경험적 및 개념적 동향들과 결합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의 가장 최근 저서 『희망의 공간』이 출판되었다. 여기서 공간의 정치경제학은 오늘날 전지구적 뻘침을 통해 세계적 경제정치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이른바 세계화의 거시적 공간에서부터 페미니즘

3) 하비와 하라웨이는 공통적으로 선진 자본주의의 시·공간적 질서에 도전하고자 한다. 많은 점들에서 그들의 접근은 중첩되지만, 그럼에도 하비는 상이하게 위치지워진 신체와 지식에 관한 그녀의 사고에 의문을 제기한다. 하비는 하라웨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시·공간에서 신체들의 범주들을 지도화하고자 하지만, 하비의 지도는 모던 관점에서 그린 것이라면, 하라웨이의 지도는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체의 미시적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공간들을 다루어야 한다. 특히 하비에 의하면, 세계화라는 용어는 제국주의나 신식민주의와 같은 용어들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규모와 차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지리적 불균등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미시적 공간으로서 신체에 관한 담론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세계화 과정과 관련시켜서만 이해되어야 한다(Harvey, 2000: 제1부 및 2부 참조). 나아가 하비에 의하면, 이러한 현재적 공간들이 구축되는 전략적 배경에는 신자유주의가 있으며, 이는 시장메커니즘을 신봉하는 부르주아적 유토피아주의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따라서 흔히 역사적으로 추구되었던 유토피아는 공간(특히 도시)적 모습으로 제시되지만, 그것이 실체화되는 과정에서 그 순수한 규범성은 포기되고 만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형태로서의 유토피아주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유토피아주의-예로, 맑스의 공산주의사회-와 대조될 수 있지만, 진정한 유토피아는 유토피아의 시·공간성을 사회과정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실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Harvey, 2000: 제3부 및 4부 참조).

공간에 관한 이러한 하비의 개념화, 즉 역사지리적 유물론을 구축하고자 하는 하비의 노력은 현재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정치경제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맑스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최근 공간을 강조하는 많은 철학자나 사회이론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원하고 체계적이며, 현실 자본주의의 분석을 위한 힘과 동시에 미래사회를 추구할 수 있는 실천적 힘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의 개념화를 위한 하비의 노력에서도 공간과 사회 간의 결합과 더불어 장소의 특수성과 공간의 일반성 간의 결합, 그리고 담론적(상징적) 공간과 실천적(물질적) 공간 간의 결합, 세계화의 거시적 공간과 신체의 미시적 공간, 지리적 불균등발전의 현실 공간과 정의와 희망을 위한 유토피아적 공간 간의 결합 등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맑스의 유물론이 하나의 완결된 사상이라기보다는 항상 열려 있는 이론체계인 것처럼, 공간에 관한 개념화 역시 하비에 의해

완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지금부터 끊임없이 도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3. 자연의 개념화와 환경정의

하비는 역사지리적 유물론의 기본틀을 토대로 공간과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특히 사회·환경적 정의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자연에 대한 하비의 우선적 관심은 최근 환경론에서 두 가지 주요한 논쟁적 주제들, 즉 ‘자연의 지배’, 그리고 ‘자연의 가치화(valuation)’에 주어진다(Harvey, 1996: 제6장 및 7장 참조).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의 철학에까지 소급되는 이러한 두 가지 논제들은 사실 근대성에 관한 생태학적 논의를 요청한다. 즉 ‘자연의 지배’라는 명제는 ‘인간해방’과 ‘자아실현’이라는 쌍생적이지만 상호모순을 담지한 계몽의 이상들과 관련된다.⁴⁾ 하비는 이러한 지배의 개념에 대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으로부터 몇 가지 주요한 사고들을 추출한다. 즉 해방적 힘으로서 과학적 탐구의 역할은 의문에 봉착하며, 이러한 의문은 합리성/비합리성에 관한 고찰과 결부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미적 전통에 매우 긴밀한 관심을 부여하거나 또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인간의 억압, 욕구, 그리고 필요에 관한 이슈들에 관심을 두기도 하며, 방법론적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분리를 의문시하면서 그 내적 관계들의 변증법에 호소하기도 한다. 하비는 특히 마지막 측면에서 인간과 자연 간의 내적 관계를 주목하면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부정 변증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판을 가한다.

자연의 가치화라는 명제 역시 오랜 역사와 복잡한 논의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비의 설명에 의하면, 우선 고전경제학에서 자연은 ‘자원’으로서 간주되고 그 화폐적 가치에 의해 측정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화폐가치로

4) 근대성과 자연의 지배에 관한 연구로, Leiss(1994) 참조. 또한 자연에 관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주장들에 관하여, Vogel(1996) 참조.

서의 자연은 단순한 화폐단위로서의 자연가격의 측정 이상으로 복잡한 내용들—예로, 화폐는 사회적 힘이며, 따라서 화폐로 가치화된 자연(의 소유)은 결국 사회적 힘 관계가 된다—을 가진다. 이와 같은 화폐적 가치화로서 자연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지만,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자연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하비는 이러한 점에서 자연의 가치화에 관한 몇 가지 은유(메타포)들을 해석하면서, “만약 가치가 자연에 내재한다면, 우리는 과학적 탐구의 특정한 방식에 따라 전개된 메타포들에 함의된 가치와는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Harvey, 1996: 162).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러한 자연의 가치화는 일방적으로 인간에 의해 자연에 부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에 관한 담론과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논제들의 이해는 인간과 자연 간의 변증법, 또는 사회적 및 환경적 변화의 변증법으로 나아간다. 하비에 의하면, 최근 환경-생태적 논제들은 권위주의, 국가관리주의, 다원적 자유주의, 보수주의, 도덕적 공동체주의, 생태사회주의, 생태페미니즘 등에 의해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지리적 유물론과 사회생태적 프로젝트의 정치경제학으로 대체되거나 수렴되어야 한다. 특히 하비는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의 변증법은 진화론적 견해와 생태사회주의적 정치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증법적 틀 속에서, 소외와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와 생태적 프로젝트, 기술의 문제, 공통성과 차이의 변증법, 시·공간적 규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비는 포스트모던 담론에서 핵심적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차이’와 이에 근거한 ‘정의’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환경정의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을 분석한다. 하비에 의하면, ‘차이’는 사회정의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와해시키는 개념이다. 한편으로 다양성과 차이, 타자성 등에 관한 고무·찬양은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즉 하비에 의하면, 포스트모던 정의론, 특히 차이에 기초한 영(Young, 1990)의 정의 개념은 자신의 관점에서든 모두 공감될 수 있지만, 정의를 위한 사회적 문제는 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유의한 차이’이며, 또한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⁵⁾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책 전반에 걸쳐 ‘차이의 지리’에 관한 다중적 정의들을 제시하고 그 함의를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예로, 차이의 지리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사실 지리적 불균등발전이며, 또한 한 지역 내 배타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공간이다. 그는 이러한 배타성이 장소기초적 정치와 관련되며, 이러한 장소특정적 차이의 강조와 이에 기초한 정치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에 의해 흡수되고, 전환되고, 재구축되고 있다고 비판한다.⁶⁾

차이와 타자성이 생태(환경)운동에서 동원되는 방식에 관한 분석에서, 하비는 자연을 우리의 ‘타자’로서 물신화시키고 외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간에 ‘정의’를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가 공통적인 경향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사회정의를 영구적 정의

-
- 5) ‘유의한 차이’를 강조하고 국지성과 세계성 간의 변증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비는 미국 북캘리포니아 햄릿에 있는 닭 가공공장의 화재사건을 해석한다. 이 화재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정치적 반응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차이를 소거시키는 보편주의와 통일된 정치적 반응을 방해하는 포스트모던 전략 간의 타협의 결과라고 비난한다. 사건 발생 후 사망자 25명 가운데 18명이 여성이고, 12명이 흑인(아프리카-아메리카인)이라는 점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여성의 문제 또는 흑인의 문제를 부각시키긴 했지만, 이들이 흑인-여성의 문제이며 또한 나아가 계급의 문제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비는 “노동계급의 정치가 인종과 성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치가 ‘성과 인종’에 기초한 이해관계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arvey(1996), p. 358 참조.
- 6) 예로, 장소특정적 차이는 자기 정의의 수단으로 이원론적인 ‘타자’에 의존하지만, 이러한 타자성은 국제적 관광과 사업을 위하여 상품화된다는(Harvey, 1996: 325). 따라서 우리는 정치경제적 힘과 관련시켜 차이의 생산과 그 실천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비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차이의 지리가 아니라 ‘내적으로 이질적이며, 변증법적이고 역동적인 편성으로서 장소’를 이해하기 위한 진정한 차이의 지리를 주장한다.

<표 1> 하비가 제시한 사회정의론과 환경담론 간 관련성 및 생물중심적 유추

정의론의 전통	환경담론	생물중심적 유추(생태환경에 관한 정의)
공리주의	표준적 견해	동물권리를 번창·증식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많은 종들에게 확대
사회계약론	생태적 근대화론	위험에 처한 종의 권리를 위한 강력한 인정
자유주의	현명한 이용 교리	모든 ‘생명의 주체들’에 따라 권리의 영역을 확장
(급진적) 호혜주의	환경정의운동론	모든 종들과 그 서식지들의 공생적 존재 인정

또는 도덕성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에서,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과정들에 개연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Harvey, 1996: 399).⁷⁾ 그리고 그는 기존의 환경담론들을 4가지 유형, 즉 환경관리의 ‘표준적 견해’, ‘생태적 근대화’, ‘현명한 이용’(사유재산의 옹호를 전제로 함), 그리고 ‘환경정의운동’(약자를 옹호하는)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각각 특정한 (환경)정의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광의적으로 인류중심적인 정의론들은 각각 생물중심적 유추들을 가진다. 즉 공리주의는 동물권리를 번창, 증식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많은 종들에게 확대되도록 요구하며, 계약론적 이론은 위험에 처한 종의 권리를 강력하게 인정하고자 하며, 자유주의적 이론은 모든 ‘생명의 주체들’에 따라 권리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며, 급진적 호혜주의 이론은 모든 종들과 서식지들에 관한 심층적 생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표 1> 참조).

『정의, 자연, 차이의 지리학』 마지막 장에서, 하비는 도시의 생태학을 사회정의를 위한 운동의 통일을 위한 맑스주의적 변증법적 틀로서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한편으로 도시는 항상 유토피아적 맥박과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근대 도시는 부정의와 빈곤의 디스토피아가 되었다. 하

7) 즉 하비에 의하면, 환경적 이슈들에 관한 담론은 (푸코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권력의 표현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생태적 담론은 항상 사회에 대한 주장이라고 강조된다.

비는 어떻게 왜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는가를 고찰한다. 그러나 하비는 이러한 디스토피아적 근대도시에 의해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급속히 가속되고 때로 통제불가능한 도시화과정에서 심화된 모순들이 자유와 해방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틈새공간을 창출”했으며, 하비는 이러한 틈새공간에서,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우리의 미래장소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생각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Harvey, 1996: 420 및 326).

그의 전략적 유토피아주의에 의하면, 정의로운 사회는 도시의 다원성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롭고 유연한 실체를 창출하기 위한 제한된 정치행위를 위한 담론의 동원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유토피아는 근대성의 정수로서 유토피아주의에 의해 요청되는 어떤 이상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정의 ‘모멘트’의 도해에서 구축될 수 있다. 여기서 가능한 도시 미래에 관한 하비의 전망은 한편으로 상당히 모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호하다. 즉 자본주의의 세계적 축적의 그물망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구축할 가능성으로의 회귀에 관한 의문에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규범적인 지도그리기 및 상상하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만, 해방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수단으로서 국지성의 생산-세계화에 대응하는 ‘전투적 당파성(militant particularism)’-에서 계급 외에 다른 준거들에 의존하는 것은 현상유지적인 것으로 배제된다.

4. 세계화와 신체의 공간

이상의 논의들을 매우 복잡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서술하고 있는 『정의, 자연 그리고 차이의 지리학』에 대한 공통된 반응 중에 하나는 하비가 모더니스트와 포스트모더니스트, 구조주의자와 후기구조주의자의 논의에 심취되어 있으며, 이를 절충하거나 또는 이들 간을 왔다갔다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놀라움과 불신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하비 자신은 이

러한 자신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맑스가 결코 구조주의자 또는 모더니스트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Eagleton, 1997; Harvey, 2000: 12에서 재인용).

나아가 하비는 맑스주의 과학이 의심할 바 없이 아무리 강력하고 통찰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한 학문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다 최근 하비의 입장에 의하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자본주의 체제의 성숙과 그 위기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 맑스의 『자본론』이 필요하다. 물론 하비 자신은 현재적 세계화에 대한 정교하고 복잡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세계화의 거시공간과 신체의 미시공간을 상호 결합하여 역사지리적 유물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비는 미래의 대안적 공간을 위한 유토피아주의와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반란적 건축가를 추구하면서, 윌리엄스(R. Williams)의 『희망의 근원(Resources of Hope)』이라는 저작의 제목에 유추하여 『희망의 공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편집·발간하게 되었다.⁸⁾

이 책에서 하비는 우선 1970년대 이후 이루어진 담론 전환의 두 측면들, 즉 ‘세계화’와 ‘신체’에 관한 논의를 통해 포착된 내용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세계화는 그 동안 담론들 가운데 가장 거시적이며, 그에 비해 신체는 사회작동의 이해의 관점에서 가장 미시적인 것으로, 이 두 가지 담론 체계는 사회적·정치적 삶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세계화에 관한 논의와 신체에 관한 논의들은 무수히 많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호 결합시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된다. 즉 이 책에서 하비는 ‘세계화’와 ‘신체’가 상호 긴밀하게 통합되어질 수 있는 방식을 묘사하고 이러한 연결의 정치적·지적 결과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신체의 미시공간과

8) 또한, 하비에 의하면, 1998년은 『공산당 선언』이 발간된 지 150주년이고,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서명된 지 50년이 되는 해임을 기념하면서 이 책이 쓰여졌다고 한다.

세계화의 거시공간을 연결해 줄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하비는 맑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사람을 지방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즉 자본의 지리적 지정학적 전략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 하나의 정치적 운동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즉 존재하는 공간적 규모의 계층 위에 계급정치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선언’에 제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⁹⁾

보다 구체적으로, ‘세계화’라는 용어는 1970년대 중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가 그 회사의 신용카드의 세계적 확장을 광고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그 탁월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국가통제로부터 시장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신자유주의의 용감한 신세계와 결부된 핵심적 개념이 되었다(Harvey, 2000: 13).¹⁰⁾ 하비는 이러한 세계화의 개념이 정치적 의미로 증만된 제국주의 및 신식민주의라는 개념을 대체했다는 점에서 비판하면서, “세계화란 과정, 조건, 또는 특수한 종류의 정치적 계획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Harvey, 2000: 53).¹¹⁾ 즉 자본주의는 항상 자본의 회전속도를 증대시키고, 결과적

9) 구체적인 예로, 유엔개발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 85% 이상의 세계인구가 단지 15%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358명의 상위 부자들의 순가치는 세계 인구의 하위 45%(23억 명)의 소득과 맞먹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맑스와 엥겔스가 ‘선언’에서 ‘당신은 사유재산을 없애 버리려는 우리의 의도를 알면 두려울 것이나, 인구의 9/10은 이미 사유재산이 없다’라고 주장한 점은 어떤 의미에서 현대사회에 보다 큰 적실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0) 그러나 실제, 신자유주의하에서 국가의 개입은 보다 고도화된다. 즉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 국가는 심지어 정치경제적 삶의 보다 깊은 곳까지 침투해야만 하고, 몇몇 방식에서는 전에 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 대처주의는 특정 측면에서 고도의 간섭주의이다”(Harvey, 2000: 65).

11) 또한 Harvey(2000), p.73 참조. 이러한 점에서, 사파티스타운동에서 제기된 세계화의 개념 규정이 이해될 수 있다. 즉 이 운동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세계화란 암살을 자행하고자 잊어버리는 자본의 ‘현대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인간성 대신에 “주식시장의 가치지표(주

으로 발전의 시간 축을 혁명화하기 위해 회전율을 가속화해야 하는 압박하에 있다. 결국, 자본주의는 ‘시간을 통한 공간의 절멸’을 위해 모든 공간적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지만, 이는 ‘조정된’ 공간의 생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경제·공간적 과정에서, 세계의 임금노동은 30년이 못되어서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제3세계의 본격적 자본주의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적 프롤레타리아의 규모는 사상 최대에 달하게 되었고, 여성 노동력의 편입과 더불어 노동력의 세계적 이동이 증대하면서 세계의 도처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의 재영토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세계화라는 용어를 ‘지리적 불균등발전’이라는 용어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자본의 축적은 항상 근원적으로 지리적인 문제이며, 지리적 확장, 공간적 재구조화 그리고 지리적 불균등발전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하나의 정치경제체제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된다. 하비에 의하면, 지리적 불균등발전은 두 가지 근본적 요소로 이해된다. 첫째는 ‘공간적 규모’의 생산이고, 둘째는 ‘공간적 차이의 생산’이다(Harvey, 2000: 제5장 참조). 즉 지리적 불균등발전은 변화하는 규모와 지리적 차이의 생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혼합에 의해 일반적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지리적 불균등발전은 다양하고 특수한 이해들을 공통적인 이해의 어떠한 틀로 적절하게 결합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또한 지리적 불균등발전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궤도 내에 현존하는 강렬한 모순들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세계화는 이러한 모순들을 지연시키기 위한 공간적 조정, 즉 상이한 규모와 장소에서 거대한 내적 파괴, 가치하락, 감가를 수반하며, 노동자의 해고, 실업, 서비스의 붕괴, 생활수준의 하락, 자원손실과 환경파괴를 폭력적으로 진행시킴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지리적 불균등발전은 이러한 발전을 극복할 수 있

식가격)를, 존엄성 대신에 불행의 세계화를, 희망 대신에 공허함을, 생명 대신에 테러의 국제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는 틈새 공간을 만들어낸다. 하비에 의하면, 자본을 위한 공간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노동자를 위한 공간적 조정이 가능한 방법도 모색될 수 있다. 지리적 재질서화와 재구조화, 공간적 전략과 지리적 요소, 지리적 불균등 발전 등의 수단은 역사적으로나 오늘날에 자본축적과 계급투쟁의 역동성에서 중요한 측면이 된다. 왜냐하면, 불균등한 조건은 정치적 조직화와 행위에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 물론, 다수의 우파 대중적 민족주의를 촉진하는 무리들도 있지만, 자신의 주어진 지방적 조건하에서 세계화에 저항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비는 맑스주의의 역사적 강점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다중의 목적을 가지는 다원적 투쟁들을 보다 보편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종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즉 ‘특정 당파적 이해관계의 방어와 향상이 적절히 묶여지면’ ‘보편적 이해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윌리엄스의 구절이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되며, 하비 자신이 명명한 ‘지정학적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되게 된다.¹²⁾

이러한 세계화의 거시공간적 문제의 다른 한 극단에 신체라는 미시적 공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Harvey, 2000: 제2부 참조). 신체 및 이와 관련된 개념들, 예로 젠더(gender), 성(sexuality), 자아 등에 관한 담론은 특히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강조되게 되었으며, 이들에 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이론화는 진보적이고 해방적 정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되게

12) 하비에 의하면, 계급투쟁에 있어 어떤 형태의 국제적 연대가 형성된다면, 다양한 종류의 사회·생태적 행위 전체에 걸쳐 작동하는 억압조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노력, 즉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 혹은 보호하려는 투쟁이 적실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문화’를 ‘정치경제’로부터 분리시키고, 문화의 본질주의, 특이성 그리고 특수성을 위해 정치경제의 세계화와 보편화를 부정하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원주의를 위한 호소가 아니라 폭넓은 반자본주의 관심의 계급적 내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호소, 즉 지리적 불균등발전이라는 개념으로의 전환을 통해, 다원적인 전투적 당파주의에 근거한 저항운동에 내재된 정치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되었다. 즉 최근의 신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흔히, 신체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변화하는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로 간주되거나, 또는 신체는 폐쇄되고 밀폐된 물체가 아니라 창조되고, 경계되고, 지속되고, 궁극적으로 복합적 과정의 시·공간적 흐름으로 용해되는 관련적 생물(유기체)로 간주되기도 한다. 나아가 신체는 자신의 내부에서나 자신의 환경 속에서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욕망의 기계로서, 자신을 생산하고, 지탱하고, 용해하는 과정들과 관계되어 활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도덕적이고 기호를 사용할 능력을 부여받은 신체적 인간은 자신의 몸이 신체 정치에서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신체는 정치적 저항과 해방정치의 특권적 장으로서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비에 의하면, 이러한 신체의 특권적 지위는 사회생태학적 과정에의 뿌리내림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 없다.¹³⁾ 신체는 사회적 구성물로서, 그 주위를 휘감고 이를 구성하는 외적 힘들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핵심적 결정인자들 가운데 하나는 노동과정이며, 세계화는 바로 이 과정이 어떻게 독특한 방식으로 정치경제적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화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신체와 관련된 공간의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데카르트적 논리의 출현과 동시에 공간은 절대적 영역에 속하게 되고, 공간은 모든 감각과 육체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르페브르와 푸코가 추구하는 해방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뉴턴적, 데카르트적 공간과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의 절대주의로부터 감각과 신체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비에 의하면, 또한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부속물로 전략한 신체를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신체는 자본순환 및 다양한 규율 메커니즘에 노출되고 이에 의해 지배되게 된다.

13)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신체로의 회귀’ 또는 신체 환원주의의 위험성, 즉 신체는 대안정치를 위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본적 개념이라는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로, 하비에 의하면, 신체 자체의 해방보다는 생계임금을 위한 투쟁이 더욱 절박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신체가 노동력이라는 가변자본으로 순환하게 됨에 따라, 자본은 노동하는 신체를 침범하고, 손상시키고, 억제하고, 불구로 만들고 결국 파괴·소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가변자본의 순환과 같은 사회과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체는 결코 유순하고 수동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한 순간에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다른 순간에는 이에 투쟁하게 된다.¹⁴⁾

5. 유토피아 공간의 변증법

『희망의 공간』에서, 하비는 이와 같이 세계화의 거시공간과 신체의 미시공간을 상호관련적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유토피아에 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맑스주의의 전통에서 보면, 유토피아에 관한 논의 또는 유토피아주의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나, 심지어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 또는 비과학적 이상주의로 비판된다. 그러나 하비에 의하면, 이러한 유토피아주의는 우리의 역사지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파괴적인 힘이 되기도 한다. 상상의 자유로운 유희, 즉 ‘공간적 유희로서 유토피아’는 사회적 관계, 도덕적 질서, 정치경제체제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흥미로운 사고를 탐구하고 표현하기 위해 창의적 수단이 되며, 활동가들은 이러한 수단을 통해 가능한 공간적

14) 신체를 통한 가변자본의 순환은 이미 『정의, 자연, 차이의 지리학』에서 강조된다. 즉 화폐의 흐름은 사실 모든 신체들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위치지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신체적 종속에 대해 어떻게 저항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를 위치지우는 화폐의 흐름으로 계급 위상과 운동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화폐의 흐름만으로 신체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신체의 문제를 단지 화폐적 흐름의 단일 관점으로만 환원시키고 차이를 규정함에 있어 계급의 특권적 지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질서의 무한한 배열을 추구하게 된다. 즉, 무정부주의적이거나,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종교적이거나 그 외 다양한 지향성을 가지는 많은 대안들은 어떤 특이한 공간적 질서나 사회적 과정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목적을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제시된 여러 유형의 유토피아들은 대체로 공간적 형태, 특징적으로 도시적 모습을 가진다. 호머의 『오딧세이』에 묘사된 도시국가 페아키아(Phaacia)에서부터 그리스-로마시대의 아테네 등의 많은 도시국가들은 당시의 어떤 이상적 사회공간적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도시와 시민들의 상호관련성을 전제로 한 도시의 공간적 규모와 배치에 관해 논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받아 르네상스 이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등에 의한 이상적 세계는 도시의 형태를 띠게 되며, 하나님의 도시, 신의 도시, 영원한 도시, 언덕 위의 도시 등으로 상징된다. 19세기 도시공동체에 관한 오웬, 푸리에, 하워드 등의 논의도 이러한 유토피아적 공간 편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직접 실험하고자 했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도시계획가들의 공간 모형들은 결국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유토피아적 도시들은 다른 한편 역사적으로 사회적 무질서, 도덕적 붕괴,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원천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바빌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플라톤이 고취시켰던 유토피아는 해방적이고 행복한 하늘의 도시만큼이나 쉽게 억압적이고 전체적인 지옥으로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의 도시가 ‘다른’ 공간에 비해 ‘행복한 장소’라면, ‘사악한 타자’의 공간도 역시 항상 인간의 역사와 의식 속에 존재했다. 사실 농촌에 근거를 두었던 봉건제의 몰락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도시 공기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는 억압과 무질서, 부패와 환락이 독버섯처럼 만연한 장소로 전락했다.

유토피아를 위한 상상적인 자유 유희는 권위의 존재와 제약적 통치형태들과 복잡하게 얽혀 진다. 푸코가 감시와 통제를 위한 공간 체계의 창출을 통한 ‘파놉티콘 효과(panoptican effect)’라고 한 것이 또한 유토피아

적 도해에 편입되어, 타락한 유토피아들을 실체화시키고 있다(Harvey, 2000: 163). 디즈니랜드는 오늘날 이와 같이 타락한 유토피아를 대표한다. 실제 세계의 ‘바깥’에 이어서 건립된 디즈니랜드는 공간적 유희의 세계로 환상적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장소는 행복하고, 조화로우며, 갈등이 없는 것처럼 가정된 공간으로, 부드럽고 진정시키며, 즐겁게 하고, 역사를 창조하며 어떤 신비한 과거를 위한 향수를 부추긴다. 그러나 이들은 상품문화의 물신성을 반영하며, 우리는 이와 같이 타락한 유토피아들로 온통 둘러싸여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사실 미국의 교외화는 바로 이러한 부르주아적 유토피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공간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Fishman, 1977 참조). 내부 도시의 이질적 인종구성과 공간편성을 벗어나기 위해 배타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문이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식 유토피아 건설은 사실 교외 개발이라는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와 밀착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토피아는 흔히 공간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공간상에 실체화되는 과정에서 그 순수한 의도들은 소멸되게 된다. 이와 같이 공간적 형태의 유토피아를 실현함에 있어 실패 또는 왜곡은 공간적 형태 그 자체의 실패 못지 않게 이를 실체화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과정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만약 공간적으로 실체화된 유토피아가 이의 건설에서 동원된 사회적 과정 때문에 잘못되었다면, 초점은 과정의 문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유토피아를 고찰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유토피아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다소 이상하게 된다. 왜냐하면,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비록 무장소(no place)라는 의미라고 할지라도 어떤 장소적 개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로, 헤겔과 맑스는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와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시간적 과정의 특이한 견해를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 공간적 형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즉 그들은 무장소적 목적론을 제시하면서, 역사를 어떤 상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또는 정치적 선택의 연속으로 이해했다. 즉, 사회적 과정의 유토피아는 (공간과 장소 내에서) 종결점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한히 개방된 프로젝트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과정의 유토피아주의라고 할지라도 어떤 왜곡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스탈린의 구소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맑스주의 그 자체도 그것이 특정한 목적으로 동원되거나 또는 현실 속에서 공간적으로 표출되게 될 때 분명 어떤 한계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유토피아를 강조하는 우파적 유토피아주의자들 역시 과정으로서 유토피아를 지향한다. 즉 이들이 헤겔이나 맑스와 같이 역사발전의 변증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공간적 형태의 유토피아보다는 과정의 유토피아를 지지한다. 공간적 형태의 유토피아가 이를 실체화시키고자 하는 (또는 이러한 유토피아를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과정들과 타협함으로써 고귀한 목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과정의 어떤 유토피아주의가 실체화될 때, 공간적 타협이 발생하게 된다. 하비에 의하면, 공간적 형태의 유토피아 및 사회적 과정의 유토피아 양자 모두에 결점과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분명한 대안은 유토피아주의를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명시적으로 시공간적인 유토피아주의를 구축하는 것, 즉 공간적 형태에 사회적 과정을 뿌리내리기가 요구된다.

공간형태의 유토피아를 사회적 과정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비는 건축가와 꿀벌 간을 비교한다. 맑스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하비는 비록 꿀벌이 매우 정교하고 과학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벌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자신이 지을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이 더 유의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하비는 미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반란적 건축가들을 요구한다. 하비에 의하면, 우리가 미래의 반란적 건축가로서 일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을 펼쳐나가는 의미 있는 이념으로서 몇 가지 주요한 보편적 권리를 주장한다(Harvey, 2000: 248-252).¹⁵⁾ 그는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

15) 즉, 삶의 기회에 대한 권리, 정치적 결사와 ‘좋은’ 통치에 관한 권리, 생산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권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침범과 보전의 권한, 면책/탈안정화의 권리, 양호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권리, 공동

래를 위한 대안이며 유토피아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하비는 책 전반에 걸쳐 ‘대안이 없다’는 식의 대처주의에 대해 철저한 경계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전망과의 싸움 속에서 하비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비는 유령처럼 나타나는 유토피아의 그림을 보게 되고, 이 책의 ‘부록’에서 우리들에게 이를 묘사하고자 한다. 하비는 2020년 혁명이 끝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비는 꿈에서 깨어나 볼티모어 거리를 다시 걷는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사회적 및 물리적 세계는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져야 하며, 만약 이것이 사라진다면 또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이 행해져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다”(Harvey, 2000: 281).

6. 맺음말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또는 극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사회공간을 전망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비의 최근 저서들, 특히 『정의, 자연, 차이의 지리학』에서 하비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전략들, 즉 세계적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정의(특히 환경정의)와 생존가능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통합하고 보편화시키는 것이다.¹⁶⁾ 그는 이러한 취지에서 차이를

소유 자원의 집단적 통제에 대한 권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를 위한 권리, 공간생산에 대한 권리, 지리적 불균등발전을 포괄하는 차이에 대한 권리 등이다.

16) Brigham, et al.(1997)에서의 서평에 의하면, 하비의 이 책은 근대성(modernity)의 프로젝트를 옹호하고, 계급과 변증법에 관한 이론들을 접합시키며, 정의에 관한 주장들을 평가하며, 저항의 수단으로서 이질성(heterogeneity)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정의론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론들과 공간 및 장소에 관한 개념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가장 최근 저서 『희망의 공간』에서 그는 자본주의 체제의 과학적 분석과 포스트모던 현실-세계화라는 가장 거시적인 공간에서부터 신체의 미시적 공간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철저한 해석과 더불어, 현재 사회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사회를 열어가기 위하여 보다 규범적인 공간의 개념이나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규범성은 정의의 개념이나 나아가 ‘유토피아’의 개념 등으로 포착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에 관한 이러한 규범적 개념화는 다양한 철학 및 사회이론의 전통과 상이한 관점 및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들과 관련하여 구축되기 때문에, 정의나 유토피아의 개념 자체가 특정한 지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자본주의적 경제정체체계에 만연해 있는 신자유주의는 시장메커니즘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부르주아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공간에 관한 규범적 개념들이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내포하거나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개념화를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사회적 과정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실천이 다시 강조되게 된다.

참고문헌

- 김덕현. 1995,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포스트모던 논쟁의 하방운동」, 《공간과 사회》, 5, 277-281쪽.
- 임서환. 1995,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던 담론과 계급정치학의 수사」, 《공간과 사회》, 5, 72-94쪽.
- 조원희. 1991, 「자본의 변증법과 공간의 정치경제학」, 《공간과 사회》, 창간호.
- 최병두. 1993, 「하비의 정치경제학적 지리학」, 한국지리연구회 편,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 _____. 1996, 「데이비드 하비의 역사지리유물론: 공간의 정치경제학과 포스트모더니티」, 《경제와 사회》, 31, 204-239쪽.
-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2000, 『공간의 정치경제학』, 아카넷.
- Brigham, A., et al. 1997, “Review of Harvey’s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Gender Place & Culture*, 4(3), pp. 365-370.
- Eagleton, T. 1997, “Spaced out,” *London Review of Books*, April 24th, 1997, pp. 22-3.
- Fishman, R. 1977, *Urban Utopias in the Twentieth Century*, Basic Books(박영한·구동희 역, 1999, 『부르주아 유토피아』, 한울).
- Haraway, D. 1995, “Nature, politics, and possibilities: a debate and discussion with David Harvey and Donna Haraway,” *Society and Space*, 13, pp. 507-27.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Arnold, London(최병두 역, 1982,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 _____. 1982, *The Limits to Capital*, Blackwell, London(최병두 역, 1995, 『자본의 한계: 공간의 정치경제학』, 한울).
- _____.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lackwell, London(구동희·박영민 역, 1995,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 _____. 1990, “Between space and time: reflections on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0(3), pp. 418-434.
- _____. 1991, “Social justice, postmodernism and the city,” Plenary Paer, European Workshop on the Improvement of the Built Environ-

ment and Social Integration in Cities.

_____. 1993a, "Class relations, social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M. Keith & S. Pile(eds.), *Pla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Routledge, London & New York, pp. 41-66.

_____. 1993b,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Reflections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in J. Bird, B. Curtis, T. Putnam, G. Robertson and L. Tickner(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박영민 역, 1995,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공간과 사회》 5, 32-71쪽).

_____.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London.

_____. 2000, *Spaces of Hope*, Edinburgh Univ.(최병두 외 역, 근간, 『희망의 공간』, 한울).

Lefebvre, H. 1973, *The Survival of Capitalism*, Allison and Busby, London.

Leiss, W. 1994, *The Domination of Nature*, Mc-Gill-Queen's Univ. Press.

Vogel, S. 1996, *Against Nature: the Concept of Nature in Critical Theor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